



SBS 사보 1000호 발간!!



1992년 사보 1호 '서울방송' 창간
SBS가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1990년 11월 개국한 뒤, 1992년 1월 13일 SBS사보 1호 '서울방송'이 창간되었다. 이후 SBS 사보는 SBS의 행보를 대내외에 홍보하며 회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해 왔으며, 사우들의 동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고를 통해 사원들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사내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 애사심 고취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2005년 전자사보 'SBS NOW'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시상식' 대상 수상
초기에 지면으로 발행되었던 SBS사보는, 개인 PC 보급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2005년 2월 17일(목)부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사우들을 만났

다. 인터넷 사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공간에 제한 없이 정보들을 무한정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영상 취재물 등 인터넷만의 특성을 살려 사우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또한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웹사이트로 호평을 받으며 200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에서 전자사보 부문 '인터페이스 디자인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지면 사보 복간, 2013년 6면 증면
이후 사내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7월 27일(월)부터 지면 사보를 복간하였고, 현재까지 매월 격주로 목요일에 발행하고 있다. 또, 사우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13년 2월 28일(목)부터 지면을 4면에서 6면으로 증면하였다.

이웅모 SBS사장



사보 창간호를 받아 들고 감격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사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했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사보를 다시 들춰보니 SBS가 걸어온 역사와 그 속에서 열정을 다했던 얼굴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SBS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가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고 한국의 방송문화를 바꾸는 획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SBS 미디어 그룹의 비전 실천가치인 TCDW가 담긴 명품 콘텐츠를 생산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보도 SBS가 전진하는 희망찬 여정을 그대로 담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사보가 SBS 구성원들간 상호 신뢰와 결속의 매개체가 되어 SBS 고유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수웅 SBS사우회장



SBS사보 발행 1000호를 축하하기에 앞서 먼저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사보를 건성건성 읽었습니다. 하나 요즘은 토씨하나 놓치지 않고 읽으며 사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를 떠나면서 귀만 떼어 놓고 나온 탓일 겁니다. 아마도 사보 열독율 1위는 퇴직 사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보를 통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시청률 30% 대 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자리를 어디로 옮겼고, 또 어느 후배의 승진소식을 접할 때 덩달아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내기도 합니다. SBS의 힘찬 출범과 함께 창간된 사보, 곧 SBS 사보는 승정원일기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SBS의 하루하루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000호 발행을 시작으로 SBS 사보가 사보 이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언론사 사보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명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퇴직 사우들은 매일 사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친정집 소식이 궁금한 새댁처럼...

강선모 SBS A&T 사장

SBS사보의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사보를 통해 SBS 각 본부의 다양한 소식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미디어그룹 임직원 모두 SBS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도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앞으로 다가오는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할 빅이벤트가 계속되는 만큼, SBS사보가 직원들의 마음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SBS콘텐츠허브 사장

SBS사보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1000호 발행의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초심(初心)을 우리 사우 모두가 간직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디어그룹의 소통과 One SBS, Winning SBS를 위해 SBS사보가 중심(中心)이 되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콘텐츠허브도 SBS사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誠心)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SBS사보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유환식 SBS플러스 사장

SBS 사보와 1000번째 만남입니다. 창간호처럼 설레고 감격스럽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SBS그룹의 내일을 함께 한 SBS사보는 우리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SBS 가족의 동반자입니다. 2014년에도 사보1면에는 ‘올림픽 채널 SBS’의 명성에 이어 ‘드라마 왕국 SBS’, ‘월드컵 채널 SBS’, ‘선거방송의 꽃 SBS’ 등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리더로서의 많은 성과가 게재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SBS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우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길 기원합니다.

전종건 미디어크리에이트 사장

SBS사보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SBS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통·공감의 정보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보 1000호 발행 축하메시지

사보 1000호 발행 직원들 축하메시지

“1000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더 새롭고 참신하고 맛깔나고 알찬 내용을 기대합니다.” -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곽은하** 차장대우

“SBS 사보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알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 전해주셔서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BS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최혜림** 사우

“SBS사보 천호발행,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 제작본부 교양3CP소속 **오기현** 부장

“SBS의 역사인 사보 1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사보 1000호 발간의 그 날까지 SBS여 영원하세!” - 드라마본부 드라마지원팀 **김동호** 차장

“지령 1000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었그제 1호가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1000호가 나왔네요.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하였고, 다 함께 1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경민석** 차장

“SBS 사보 1000호를 발행하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더한다면 이루 완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는 이벤트와 퀴즈를 접목한다면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축하축하 ^^”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손지혜** 사우

“SBS 사보는 사보는 것이 아닙니다. SBS 사보는 싸보이지 않습니다. SBS 사보는 사보(社寶 - 회사의 보물)입니다.” - 경영지원본부 기술기획팀 **오건식** 부국장

“1000호 발행 축하드립니다”
- 경영지원본부 송출기술팀 **고한봉** 차장



열정의 소치 꿈꾸는 평창
올림픽채널 SBS
OLYMPIC CHANNEL

SBS 올림픽 방송, 차별화된 스토리와 정보로 각광

동시 중계 시청률에서 11전 8승, '올림픽채널'로서 탄탄한 입지 굳혀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SBS는 KBS, MBC와 총 11번의 올림픽 경기 중계 방송 경쟁을 펼쳤다. SBS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2월 8일(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중계에서 시청률 16.5%(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당시 15.0%였던 MBC를 압도하며 출발했다. 그리고 13일(목) 쇼트트랙 중계는 시청률 13.0%, 12.0%를 기록한 KBS2를 이겼고, 15일(토)과 18일(화)에 펼쳐진 쇼트트랙 중계 역시 각각 16.2%와 11.0%를 기록하며, 당시 각각 15.1%와 10.1%에 그친 MBC를 제쳤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0m 중계에

서도 시청률 14.4%로 12.8%의 KBS2를 눌렀다.

뿐만 아니라 방송 3사가 유일하게 동시중계한 19일(수)과 20일(목)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리에서도 각각 12.6%와 11.5%를 기록, KBS와 MBC를 모두 이기는 기염을 토했고, 이어 21일(금)에 쇼트트랙 중계에서도 5.6%를 기록하면서 5.1%에 그친 KBS2를 제치는 등 총 11번의 동시 중계방송 경쟁에서 8번이나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SBS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소치 올림픽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올림픽 대표 방송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특화된 방송으로 올림픽의 즐거움을 더하다

쇼트트랙 국제신호 제작, SBS의 중계기술 인정받아



SBS는 OBS의 의뢰를 받아 쇼트트랙 국제신호를 제작하여 화제가 되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양궁과 태권도 국제신호를 제작했던 SBS는 세계적인 수준의 중계기술을 인정받아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국제신호를 제작했다.

피겨 중계 픽토그램 도입,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



또한 SBS는 2월 19일(수)과 20일(목) 방송된 피겨 중계에서 선수들의 동작을 형상화한 픽토그램과 점프를 설명하는 미니멀 인포그래픽을 선보였다.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미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알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서, 피겨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깊이 있는 정보와 생동감 넘치는 해설



타사 대비 전문성을 갖춘 해설자와 캐스터로 구성된 SBS의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경기의 재미를 배가시켰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피겨의 배기완 캐스터와 방상아 해설위원은 김연아 선수의 성장과 함께 해온 노련한 해설로 타사의 중계를 압도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배성재 캐스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흥미를 높였으며, 대표팀 감독 출신인 김관규 해설위원의 전문적인 해설과 조화를 이루어 몰입을 높였다. 쇼트트랙 안상미 해설위원은 명확한 발음과 객관적인 해설로 신뢰감을 주었다. 그 외에 각 종목을 중계한 SBS해설위원들도 깊이 있는 정보와 함께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담은 해설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한 발빠른 현장 취재

이상화 선수 메달 수여식에서 단독 인터뷰
배기완·방상아, 김연아 공개연습 해설

2월 13일(목)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메달 수여식에서 배성재 캐스터와 김관규 해설위원이 이상화 선수를 단독으로 인터뷰하고, 이상화 선수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 받아 이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소개하며 배경음악으로 들려주는 센스 있는 구성으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가진 첫 공개 연습을 보여주며 배기완 캐스터와 방상아 해설위원의 해설을 곁들였고, 김연아 선수의 대기실 모습 단독 공개와 해외 중계 영상 제공 등으로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거리 응원전 화제

SBS는 경기 중계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각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수들의 숨은 노력을 담았다. 사보 999호에서 소개했던 <동계올림픽 그것이 알고 싶다>외에 미니 다큐, 러시아 음악을 배경으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영상을 담은 <러시아 영웅을 품다> 등 차별화된 올림픽 특집 프로그램으로 무장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미니다큐 <오늘의 국가대표>는 이규혁 선수의 마지막 질주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의

노력을 조명한 의미 있는 내용과 영화 같은 영상으로 감동을 주었다. 또한 SBS는 2월 10일(월)과 15일(토), 19일(수)~20일(목)에 대학로와 홍대입구에서 거리 응원 이벤트를 하여 올림픽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15일 응원전에서는 무려 4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가 '트위터미러'에 직접 감사인사를 남겨 화제가 되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생생한 감동 스토리 <힐링캠프 in 소치>



2월 17일(월) 밤 11시 5분에 방송된 <힐링캠프 in 소치>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를 초대하여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이상화 선수의 반전 매력과 가족 이야기 등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토크쇼의 재미와 올림픽의 감동을 전하며 관심을 높였다.

이어서 2월 19일(수) 저녁 7시 5분에 방송된 <힐링캠프 in 소치>에서는 24

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한 스피드 스케이팅 이규혁 선수가 출연하여,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의 만형으로 6번의 올림픽 출전이라는 의미 있는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총 2회 방송된 <힐링캠프 in 소치>에서는 예정된 토크콘서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MC 김제동 대신, 배성재 아나운서가 특별 MC로 활약하며 해박한 스포츠 지식과 뛰어난 예능감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SBS 드라마의 품격, 3월에도 이어진다

<신의 선물-14일> 3월 3일(월) 밤 10시 첫 방송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후속으로 방송되는 <신의 선물-14일>(극본 최란, 연출 이동훈)은 유괴된 딸을 살리기 위해 14일 전으로 타임워프된 엄마와 전직 형사가 의문의 납치범과 벌이는 치열한 두뇌게임을 그려나갈 미스터리 감성 스릴러 드라마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스타성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은 이보영이 딸을 지키고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김수현 역을 맡았고,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조승우가 흥신소를 운영하며 14일간의 사투를 함께 하는 가동찬 역을 맡아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태우, 정겨운, '연기신동' 아역배우 김유빈도 출연하여 환상의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의 선물-14일>은 <일지매>를 집필한 최란 작가와 <바보엄마>를 연출한 드라마본부 드라마2EP소속 이동훈PD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2월 27일(목)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쓰리 데이즈> 3월 5일(수) 밤 10시 첫 방송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종영을 앞둔 <별에서 온 그대>의 후속인 <쓰리 데이즈>(극본 김은희, 연출 신경수)는 박유천, 손현주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고, <싸인>과 <유령>을 성공시킨 김은희 작가와 <뿌리 깊은 나무>를 연출한 드라마본부 드라마2EP소속 신경수PD가 연출을 맡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경수PD는 “<쓰리 데이즈>는 대통령과 그를 지키는 경호관의 이야기이다. 드라마는 묻는다. 대통령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고? 경호관은 변민한다. 단 한번의 의심 없이 수행해 왔던 일들이, 자신의 삶이 부정 당한다. 그리고 그 끝에 만나는 진실 앞에 또 다시 묻는다. 진정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인지? 사력을 다해 지키려 했던 당신의 가치가 그 만큼의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대통령이 나오고, 경호관이 있기에 이야기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드라마의 외피보다는 등장인물들 간의 치열한 마음의 대립, 그 절실함이 잘 전달되는 드라마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쓰리 데이즈>는 2월 26일(수) 제작발표회를 가졌고 3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정글의 법칙 in 보르네오〉 2월 28일(금) 첫 방송

100회 특집 생존대결, 역대 최다 신입 부족원 합류!

색다른 미션과 개성 강한 부족원들의 활약으로 금요일 예능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 2월 28일(금) 12번째 시즌 〈정글의 법칙 in 보르네오〉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특히 28일 첫 방송은 〈정글의 법칙〉의 100회 특집으로, 두 부족 간의 생존 대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하여 〈정글의 법칙 the 형제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이번 시즌의 병만족은 기존 멤버인 김병만, 임원희 외에 봉태규, 이영아, 사이니 온유, 서하준, 김동준, 황현희가 합류하며 역대 최다 신입 부족원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성훈, 황광희, 오종혁, 전해빈 등 〈정글의 법칙〉 이전 시즌에서 다양한 개성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멤버들이 병만족과 대결을 벌이는 최강자족으로 출연한다.



2월 25일(화) 제작발표회 개최

개성 강한 신입 부족원들로 구성된 〈정글의 법칙 in 보르네오〉는 2월 25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제작발표회를 개최하고, 100회 특집의 시작을 알렸다. 연출을 맡은 제작본부 예능3CP소속 김진호 PD는 “〈정글의 법칙〉 99회까지 조연출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이번 시즌에 모두 쏟아부었다. 100회를 맞아 두 부족의 생존 대결과 게임을 점목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란다.”고 하여 기대를 높였다. 보르네오는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지구상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열대우림을 간직한 곳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이자 오랑우탄, 피그미 코끼리, 안경 원숭이, 천산갑 등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살아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이들이 어떤 생존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좋은 아침〉 성김 주한미국대사 부부 방송 최초 토크쇼 출연 3월 6일(목) 오전 9시 10분 방송



한미 수교 129주년 만에 첫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성김 대사가 〈좋은 아침〉에 출연한다. 지난 2월 25일(화) SBS일산제작센터에서 녹화를 마친 성김 대사는 아내와 함께 출연하여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검사와 외교관으로 성공하고 한국에 금의환향하기까지 삶과 인생,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생활과 한국의

맛과 멋에 매료된 한국 사랑을 이야기했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성김 대사 부부와의 토크는 3월 6일(목) 오전 9시 10분 〈좋은 아침〉에서 볼 수 있다.

〈오 마이 베이비〉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 합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로 공감



3대가 펼쳐는 육아예능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오 마이 베이비〉에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했다. 2월 17일(월) 방송부터 출연한 김소현, 손준호 부부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자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김소현, 손준호 부부는 뮤지컬 배우라는 이색적인 직업과 육아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로 시청자와 소통의 장을 넓힐 예정이다.

SBS, 리얼리티의 새 지평을 열 〈도시의 법칙〉 제작 〈정글의 법칙〉에 이어 ‘법칙’ 시리즈 이어간다

SBS가 2014년 새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도시의 법칙〉을 제작 준비 중이다. 제작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도시의 법칙〉은 대도시에서의 생존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포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정글의 법칙〉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푸아, 바누아투, 마다가스카르 등 다수의 시즌을 연출한 제작본부 예능3CP소속 이지원 차장대우가 준비하고 있다. 이지원 PD는 현재 촬영후보지를 답사 중이며, 촬영은 4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SBS, 씨엔블루 컴백쇼 〈Can't Stop〉 방송 3월 2일(일) 밤 12시 15분



SBS는 1년여 만에 5번째 미니앨범으로 국내 음반 활동을 재개하는 씨엔블루의 컴백쇼를 방송한다. 지난 22일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녹화를 마친 씨엔블루는 신곡 6곡과 히트곡 메들리 무대로 컴백쇼를 관람한 500명의 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냈다. 씨엔블루의 첫 단독 컴백쇼 〈Can't Stop〉은 오는 3월 2일

일요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러브FM 전국화 TF 출범

2014년 올해 SBS의 혁신경영 위원회 TF 중 하나인 러브FM 전국화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러브FM은 전국화를 통해 SBS 라디오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가오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SBS 라디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라디오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러브FM의 전국화는 절실한 과제이다. 지난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러브FM 전국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와 업무 분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혁신경영위원회 산하 각 TF는 1~2주에 한 번씩 팀장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본부장과 TF팀장들이 모여 분기 점검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12월 말에 최종 실적보고 회의를 갖는다.

사내 소식

〈최후의 권력〉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SBS 창사특집 대기화 〈최후의 권력〉이 2월 25일(화)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2013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후의 권력〉이 권력의 참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고, 최후의 권력이 국민임을 강조함으로써 미래 권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을 수상 사유로 밝혔다.

‘희망 2014 나눔캠페인’ 성과 보고



한국방송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SBS,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2014 나눔캠페인’이 지난 1월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3년

11월 20일(수)부터 2014년 1월 31일(금)까지 73일간 진행된 ‘희망 2014 나눔캠페인’은 SBS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의 노력과 참여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SBS미디어그룹 2억원을 포함하여 일반인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원에 힘입어 총 9억 7천 8백 여 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이 가운데 평소 나눔을 실천해온 SBS 사우들의 따뜻한 모습도 많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박은정 차장대우는 공익캠페인 참여 출연료 전액을 성금으로 기탁하였고, SBS 화극인 일동을 비롯해서 많은 사우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모인 모든 방송사 성금 총 4,295억여 원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사우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희망TV SBS’ - 강남구의사회

‘글로벌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2월 19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9층 미디어홀딩스 대회의실에서 SBS 희망내일위원회 김태성 사무총장과 장광호 제작본부장, 강남구의사회 회장인 박홍준 소리비인후과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TV SBS’와 강남구의사회 간의 ‘글로벌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SBS와 강남구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브룬디 의료봉사단 파견 및 말라리아 퇴치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베트남 환아 지원 사업 참여, 필리핀 타클로반 의료봉사활동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SBS 시청자위원 위촉식



2월 19일(수) 개최된 ‘제 277차 시청자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앞서 신임 시청자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지난 1월 해촉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후임으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가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룹 소식

SBS 미디어 홀딩스 제 10회 혜·來·世 강좌’ 개최



SBS미디어홀딩스는 2월 26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제 10회 혜·來·世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는 ‘서울은 깊다’의 저자인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서울은 깊다 - 관성을 뛰어넘는 과거 탐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말들의 기원과 무심코 지나다녔던 서울의 공간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MEDIACRE&CRE@M FORUM 개최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영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월 14일(금)과 21일(금) CRE@M FORUM(크림포럼)을 개최하였다. 14일(금)에는 SBS콘텐츠허브 플랫폼사업실 박종진 팀장이 SBS미디어그룹 온라인 광고 사업 방향에 대해

강의하였고, 21일(금)에는 SBS미디어홀딩스 플랫폼기획팀 김혁 팀장이 SBS미디어그룹의 콘텐츠 유통전략과 방향성 고찰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2011년 12월부터 CRE@M FORUM을 시작하여 매월 2회 개최하고 있다.

SBS Plus 미니드라마 〈여자만화 구두〉 2월 24일(월)

첫 방송



SBS플러스 미니드라마 〈여자만화 구두〉(극본 이미림 연출 안길호, 민연홍)는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사랑을 두려워하는 스물넷 여자 신지후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스물여덟 남자 오태수의 사내연애 이야기이다. 카라의 한승연, 모델출신 배우 홍중현 등 젊은 청춘 스타들이 등장한다. 〈여자만화 구두〉는 10분씩 10부작으로 모바일에서 시청하기 편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방송뿐만 아니라 매주 월~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SBS플러스에서는 매주 월~화 오후 3시 30분,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SBS 사회공헌활동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
2014년 SBS미디어그룹
사회공헌 계획

ONE VOICE! SBS HOPE TV!

SBS미디어그룹의 2014사회공헌 테마는 “ONE VOICE! SBS HOPE TV”입니다. “ONE VOICE! SBS HOPE TV”는 미디어그룹의 모든 계열회사가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을 이야기하고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아닌 사회공헌 브랜드로서의 ‘희망TV SBS’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나눔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사업 강화,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 확대

따라서 올해는 SBS의 미디어 그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희망TV SBS>의 의료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그리고 아프리카에 SBS희망학교사업 강화는 물론 임직원 참여와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NGO들과 협력, 투명한 나눔 실천 지향

또한 협력 NGO들과 함께 시청자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피드백과 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한 나눔의 실천을 지향합니다. 늘어나는 임직원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 또 각종 단체와 기관의 참여와 관심은 SBS 사회공헌의 그린 라이트입니다.

이러한 하나 된 SBS미디어그룹의 노력과 그간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에 큰 길이 되는 내일을 그려 봅니다.

☐ 희망내일위원회 사무국

SBS희망내일위원회 사무국은 SBS미디어그룹의 사회공헌 사업과 제작구성의 협의가 진행되는 사회공헌 추진체입니다. 연2회 SBS희망내일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NGO와 함께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관리·운용하며 사회공헌 방송 프로그램 구성을 협의 하며 SBS임직원들의 참여 및 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사보 1000호 발간 기념 <SBS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을 말하다>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나를 위한 삶의 경주를 잠시 멈추고 주변의 소외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참 간단해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SBS와의 동행은 더욱 특별합니다. 소외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방송으로 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프리카에 100개의 희망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SBS와의 동행을 통해 방송의 선한 영향력을 체감하며 진정한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를 느끼게 됩니다. SBS의 사보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희망을 전하는 SBS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굿피플 인터내셔널 안정복 회장

방송의 영향력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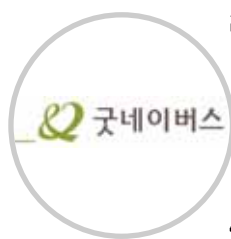
Q. SBS의 사회공헌이란? 각 NGO에게 어떤 의미인지?
A. 월드비전과 SBS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 체험 24시간>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SBS는 희망 TV SBS' 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기아체험24시간>과 <희망 TV SBS>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아픈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귀한 체험을 하였으며, 이들이 실천한 나눔으로 고통에 처한 어린이와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SBS의 전문적인 사회공헌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방송이 가진 힘은 매우 위대합니다. 이 크나큰 영향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나눔의 선순환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잃어버린 어린이와 이웃들에게 강하고 든든한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SBS와 같은 책임감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SBS의 사회공헌활동인 '희망 TV SBS'와 함께한 지난 6년 동안 '희망 TV SBS'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성장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편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정하며 일회성 선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희망 TV SBS'를 기획하고 발전시켜온 SBS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사업에서 '100개 학교 짓기'를 선언,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은 우리 NGO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과도 일치하여 더욱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SBS 사보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김미셀

2014년에도 세계 곳곳에 나눔을 전할 수 있기를



SBS의 사보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SBS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발로 뛰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희망TV SBS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굿네이버스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4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평강과 번영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SBS의 사회공헌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SBS 사보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희망 TV SBS'는 미디어가 우리사회와 나아가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분야에서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40여개 산하시설을 통해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해 온 우리 재단은 지난 2010년 '희망TV SBS'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선 비교적 짧은 역사이지만 '희망TV SBS'로 인하여 20여개 국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SBS의 사회공헌이 지구촌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합니다. -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형석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0년부터 희망TV SBS와 함께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dream wit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희망TV SBS',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기업, 통영시가 함께 개보수를 진행하여 통영지역아동센터가 오픈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희망학교 짓기, smile again 사업 등을 통하여 '희망TV SBS'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TV SBS'와 함께 희망차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법적 이슈, 이럴 땐 어떻게? ① 타 매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Q A PD는 지상파 방송사 S사의 인기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A PD는 '소치 올림픽 특집 편'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삼고초려 끝에 간신히 B선수를 설득하여 출연을 구두 약정하였다. A PD는 B 선수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작년에 B선수와 톱 모델 C양의 데이트 사진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위 데이트 사진은 스포츠00사의 기자가 장시간 잠복하여 공들여 찍은 사진, 소위 파파라치 사진이다. 게다가 A PD는 데이트 사진 상의 스포츠00의 로고를 삭제하고 사진 내용만 깔끔하게 방송에 담고 싶다. A PD는 스포츠00사의 데이트 사진을 이용해도 될까

A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동법 제37조에서 출처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고, 열거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라고 함은 1)인용목적이 정당하고, 2)인용-저작물은 프로그램에 대해 부종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 최소한도의 범위 내 인용해야 하며, 3)시장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재적 시장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타인의 저작물의 인용부분이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2)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서 원형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2011년도 FTA 이행 입법에 따라 동법 제35조의3을 신설하며, 미국 저작권법의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공정 이용의 판단을 위한 4요소, 즉 1)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동법 제28조와 관련한 기존의 판결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보면, A PD는 저작자인 스포츠00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 PD는 해당 사진 자체를 임의로 편집 수정해서는 안 되고 원형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스포츠00이라는 저작자의 로고(크레딧)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제작진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미관을 이유로 스포츠00 로고를 삭제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사진 하단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설령 사진에 저작자의 로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A PD는 방송 화면 하단에 "2013. 2. 14. 자 스포츠00"라는 문구 등으로 적극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덧붙여 데이트 사진이 프로그램 전체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시간 종속적인 관계에 있도록 사용하되, 프로그램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데이트 포착을 전면적인 이슈(ex. 연예뉴스)로 다루면서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다만 로고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면 관행적으로 저작자들이 문제 삼지 않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기획실 정책팀 박진선 변호사

| 발행 후기 |

1000호부터 시작하는
첫 걸음
마음의 소통을 지향하는
사보가 되겠습니다.



사보 1000호 특집을 기획하면서, SBS가 개국 이후 쌓아올렸던 많은 성과와 함께 소중한 일상의 추억을 함께 나눈 사우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1000호를 넘어서 다시 한 걸음을 시작하게 될 SBS사보는 보다 장려운 이야기와 알찬 정보로 사우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아직 20대인 젊은 방송 SBS의 앞날은 사우 여러분들이 있기에 밝고 희망적입니다. 이제 SBS가 나아갈 미래를 기록하게 될 사보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1000호를 발행하기까지 긴 시간을 걸어온 SBS사보의 주인인 사우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PR팀 사보 담당자

알 수 없는 내 아이의 문제 행동에도 가격 같은 솔루션이 있다!
화제의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해법서!

NEW
BOOK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음/조은영 글/경향에듀/13,000원

어디에 말도 할 수 없고 열려드는 내 아이의 이유 모를 행동들을 바로잡아보고 싶었다면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솔루션을 참고해 보자. 딱딱한 이론 대신 사례별, 유형별로 일상에 적용하기 쉽게 정리되었다. 그동안 방송되었던 내용 중 육아 고민에 지친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비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울음과 큰 소리내지 않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펼쳐지는 병만 족의 목숨을 건 생존 게임!



눈의 나라, 네팔 그리고 지구의 지붕인 히말라야에서 병만 족의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 병갈호랑이를 비롯해 맹수가 득실거리는 네팔 정글에서 병만 족은 사시각각 덮쳐 오는 공포와 사상 최악의 굶주림을 경험한다. 정글에서 간신히 살아 남은 병만 족의 다음 미션은 네팔의 지랑가리인 히말라야 등정과 그곳에 숨겨진 자연의 보석 찾기! 하늘을 그대로 품은 신비의 폭수 도 호수를 향한 병만 족의 이질한 트레킹 대장장이 펼쳐진다.

사보 999호 상품 수령인 명단

★ 사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

(사우 기고) 기획실 정책팀 이상진 차장대우
(사보 아이디어) SBS뉴스팀 영상취재팀 태양식 팀장

경조사 소식

☞ 애도합니다

경영지원본부 아카이브팀 최재현 사원 빙부상(2월 13일)
드라마본부 드라마4EP 한정환 부장 부친상(2월 19일)
보도본부 시민사회부 채희선 기자 조부상(2월 21일)
보도본부 김현철 부장 빙모상(2월 26일)